월요광장

# 이창동 전 문화부장관에 대한 기억

김 하 림
조선대 중국어문화학과 교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시험 개관한 지 얼추 한 달이 되어 간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부터 계산하면 13년이 흘렀고, 2005년 착공 시점부터 계산하면 10년이 지난 셈이다. 전당이 먹잘 것 없는 '소문난 잔치'에 불과할지, 언젠가는 배부를 '첫술'이 될지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고, 시중의 여론이나 평가도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은 듯하다. 11월의 개막식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고, 또 정식 개관이라 하더라도, 구도청 리모델링 작업이 완료되어 '민주평화교류원'까지 운영되는 것이 완전한 개관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른 평가나 판단은 시기상조이다.

9월 초 개막 전시를 관람하러 전당 입구를 내려가면서 뇌리에 떠오른 사람 중의 하나는, 이제는 영화감독으로 세계적으로 더 유명해진 참여정부 초대 문화관광부장관 이창동 씨였다. 참여정부 인수위 시절과 출범 초기, 지역에서는 DJ정부 시절의 잘못(?)과 찬밥(?)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다.

지역의 여러 현안과 과제들을 선정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지역과 정부의 역할을 논의하는 작업이 진행되었고, 이 중의 하나였던 '문화수도'를 필자가 담당했다. 준비 작업을 하면서 이창동 장관과의 토론회를 기획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이 장관과의 통화와 이메일이 자주 오갔다. 기억해 보면, 처음 이 장관은 광주 '문화수도'에 대해 부담스러워 했다. 문화에 과연 '수도'가 있는 것인지, 있어야 하는 것인지부터 시작해서 예산과 규모 등 여러 어려운 문제가 존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도 이 장관은 "광주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광주는 무엇을 하고 싶어 하나요?"라고 늘 물어보았다. 구체적 방향이나 계획이 수립되기 전이지만, 이 장관은 '광주'와 참여정부의 '지역균형발전'을 항상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 후 부산에서 이 장관과 토론회를 함께 한 경험이 있는데, 토론회가 끝난 후 이 장관은 여전히 필자에게 '광주'를 물어보고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후 문화부장관은 계속 바뀌었고, 실무 담당자들도 자주 바뀌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이 장관만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와 광주를 함께 고민한 사람은 아직까지 만나 보지 못했다. 툭하면 지역이 너무 개입하네, 지역의 수준이 문제이네 하는 말은 자주 들어 보았지만, '광주-한국-아시아-세계'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결합하고 이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관료는 드물었다.

국가의 장기적 전략을 위한 국책사업도 있지만, 한편으로 국책사업은 정부가 특정 지역의 장점을 살리거나,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역량을 집중하는 성격도 지니고 있다. '전북 새만금', '대구 밀라노프로젝트',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등이 역대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다. '새만금'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섬유산업의 도시 대구를 패션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했던 밀라노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다. 그 이유는 패션에 대한 정부와 지역의 역량이 미스매치되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문화전당은 우리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실험적인 복합문화공간이다. 문화부는 물론 민간에서도 이런 문화시설을 운영해본 경험은 전무하다. 그렇다면 주무 부서인 문화부에서는 계획의 수립과 진행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초기에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데 노력했어야 했다. 유능한 직원들을 선발해서 최소 1년 이상 '퐁피두'를 위시한 여러 복합문화시설에 보내 학습을 시켰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인력들이 광주에 근무하면서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무척이나 실망시켰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여겨진다. 젊고 의욕 있는 인력을 선발해서 2~3년 세계적인 복합문화시설에서 연수시키는 일이 필요하다. 완성된 아시아문화전당은, 설령 2023년 특별법의 시효가 소멸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몇 백 년 넘게 광주에 존재하면서 문화적 폭발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이 '첫술은커녕 마지막 숟가락'에도 배부르기 어렵다는 것은, 오랜 '예향'의 전통을 지닌 지역에서는 이미 알고 있는 역사이고 현실이다. 지역은 조급해 하지 않는다. 정확하고 올바르고 투명하기만 하면 오히려 더 기다리고 더 희생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법조칼럼

# 경청

나 상 아
광주지방법원 판사

가만히 생각해보면 말을 멋들어지게 잘하는 사람을 보며 '나도 저렇게 말을 잘하고 싶다'고 부러워해 본 적은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선망한 적은 없는 것 같다. 잘 들어주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생각했기 때문일까? 그러나 실전에 들어가 보면 말을 잘하는 것만큼,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잘 들어주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일반적인 대화에서 상대방의 진심을 이끌어내는 경청의 올바른 자세는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몸짓을 한다거나 표정 등으로 당신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위와 같은 경청의 자세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만은 아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아무리 몹쓸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라도 최후진술 단계에서 의기소침한 몰골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역정을 이야기하고,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노모와 자식들에 대한 걱정을 쏟아놓으며, 그때 마침 방청석에 앉아 있는 가족들 중 누군가가 오열해버리기까지 한다면, 판사도 인간인 바에야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우냐'며 울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만약 그 피고인에게 선처의 여지가 없는 경우에, 판사가 공감의 표시로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당신 참 안됐소, 내 마음도 아프다오'라는 의미가 담긴 표정을 짓는다면 괜히 피고인에게 헛된 희망만을 심어줄 수도 있지 않을까? 또한, 그것이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피해자의 상처를 건드리고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 되지는 않을까? 그렇다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며 참회의 이야기를 하는데 목석처럼 무표정하게 앉아 있는 것이 맞는지도 의문이다.

이처럼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경청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어려운 문제이다.

민사재판에서의 경청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원고와 피고라는 대립하는 당사자가 있는 민사재판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 판사가 어느 한 당사자의 진술에만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공감의 표현을 하는 경우 반대 당사자로 하여금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사자들은 판사가 아무런 의미를 두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지은 미소나 고개의 끄덕임 등을 자신의 승소를 암시한 행동으로 지레짐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은 당사자들에게 보여지는 법정에서의 경청의 자세에 대한 판사들의 많은 고민들 중 하나일 뿐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는다'는 본래 의미에서의 '경청'은 여태까지 법정에서 실현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한정된 시간에 많은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과 기억력의 한계 때문에 판사가 법정에서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는 글로 써서 제출하세요'라고 말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당사자들은 판사가 과연 그렇게 제출된 글들을 모두 읽어보는지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당사자들이 제출한 서면에 가끔 '판사님께서 과연 이 글을 읽으실지 알 수 없으나~' 등의 표현이 보이니 말이다.

그러나 어떤 서면의 글과 법정에서의 진술 속에 사건의 핵심 열쇠가 숨겨져 있을지 알 수 없으니, 판사는 그러한 글과 진술의 하나라도 허투루 보고 들을 수 없다. '과연 이 글을 읽어보기나 할까'라는 걱정은 접어둬도 되겠다.

우리나라처럼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재판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가 강한 곳에서는 법정에서의 사소한 자세와 표정까지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재판 때마다 그러한 자세와 표정을 일일이 의식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은 체로 하는 모든 행동이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이르려면 어느 정도의 연륜과 노력이 쌓여야 하는 것일까? 오늘도 고민하고 노력하며 당사자들의 넓은 이해와 아량을 구하는 수밖에 뾰족한 도리가 없다.

기 고

#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개소에 즈음하여

김 윤 하
전남대병원 진료처장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세상,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자연히 인명피해 소식은 하루도 빠짐없이 언론에 보도된다. 며칠 전 육군 신병 수류탄 투척 사고, 아들의 교제를 반대하던 60대 여성이 아들의 여자친구와 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사건, 중국에서 한국공무원 연수여행 중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 등 크고 작은 외상으로 인한 환자들을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외상은 크게는 아까운 인명을 앗아가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지라도 평생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야 하는 고통을 안겨준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을 접할 때마다 의료인으로서 자괴감에 빠지기도 한다.

외상이란 '사고나 폭력 등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로 인한 조직이나 장기의 손상'을 말한다. 소말리아 해적으로부터 총 4발을 맞고도 살아 돌아온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사건'의 치료과정을 통해 우리나라 중증 외상환자를 치료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음을 정부가 인식해 이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골든타임'이란 병원에서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의 목숨을 다투는 시간을 의미하며 통상 심정지 기간 4분 이내에 심장순환으로 돌아오지 않을 경우 뇌손상이 진행되고, 7분이 넘어갈 경우 뇌손상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증외상 환자의 생사가 결정되는 골든타임은 응급 외상 환자의 경우 1시간, 뇌졸중 발병환자의 경우 3시간으로 사고 발생 후 피해를 최소화하고 치료 후 효과가 가장 좋은 시간을 뜻하는 의학 용어다. '골든타임' 그 시간 안에 응급치료를 해야 살아 날 가망성이 높아지기에 그 시간이 귀하고 소중하다. 이에 대한 준비 치료시설이 권역외상센터이다.

권역외상센터는 365일 24시간 교통사고, 추락 등에 의한 다발성 골절·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병원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치료센터를 말한다. 24시간 응급수술 준비체계 운영, 전용 중환자병상 가동 등 중증외상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인 치료 제공, 외상치료 전문인력 양성, 외상분야 연구 생산 등의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드디어, 전남대병원이 권역외상센터를 개소한다.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는 2년간의 병원 8동 증축과 개보수를 통해 외상 환자들의 병원 전 처치에서부터 급성기 치료, 응급 수술 및 중환자실 진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최대한의 근접성을 갖춘 원스톱 외상시스템을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재활치료 및 사회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을 통해 한국형 외상진료체계가 더욱 튼튼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할 것이다.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전남대병원의 중증외상환자 수는 252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같은 수치에서 보듯 전남대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중증외상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으로 꼽히고 있다. 또한 2010년 413명에서 2014년 537명으로 5년새 3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원인별로는 교통사고가 21%로 가장 많았으며, 하루 중에는 오후 5시부터 밤 9시 사이의 환자가 29%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렇듯 중증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전남대병원의 권역외상센터 운영은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그간 전남대병원은 지역거점병원으로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등을 통해 수많은 응급환자를 치료해 왔지만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외상 환자 전문치료기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정부가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외상환자 예방가능 사망률 10% 이내의 기적을 전남대병원 권역외상센터가 만들어 갈 것이다.

아울러 전남대병원은 본연의 업무인 진료, 연구, 교육에 더욱 매진하면서 전국 최고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社 說

# 사업비 늘어난 지하철2호선 시민 협력 절실

광주시 지하철 2호선 건설 사업비가 애초 계획보다 7000억 원이 늘 것으로 추산돼 비상이 걸렸다. 2호선은 광주시와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헤쳐 나가지 못하면 큰 난관에 봉착할 것으로 우려된다.

최근 2호선 추진 상황을 설명한 시는 공법을 지상고가(地上高架) 방식에서 땅속으로 가는 저심도(低深度)로 바꾸면서 사업비가 최대 3000억 원 추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민원 해결 비용 4000억 원을 포함해 최대 7000억 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2016년 하반기 착공은 지연됐지만 최대한 빠른 공사 방식을 선택, 예정대로 2025년에 준공할 방침이다.

사업비 증가 부담 못지않게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도 부담스럽다. 애초 정부 승인 사업비 2조93억 원(2014년 기준)보다 20%가량이 늘면서 최종 2조3000억 원을 넘어선 데다, 푸른길 훼손 최소화, 백운광장 출입구 확대 및 지하주차장 건설 등 민원 해결에 4000억 원이 추가되면 재조사를 피하기 어렵다.

최종 사업비가 정부 승인 예산의 20%를 웃돌면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기가 최소 2~3년 늘고 예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다. 시는 설계 경제성 검토와 선별적 민원 수용으로 공기를 맞춘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제반 여건이 좋지 않은데도 광주시가 2호선 추진 실태를 낱낱이 공개한 것은 잘한 일이다. 여기에는 윤장현 시장의 '민낯 행정'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알릴 것은 제대로 알려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는 윤 시장의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제 시민사회도 2호선의 원만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내세워 민원을 고집한다면 사업 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 결국 2호선 성사 여부는 시민들의 협조가 관건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광주가 최적지라는데

광주시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자동차 산업의 미래와 광주의 선택'이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에서 조선대 최종일 교수는 "자동차 부품 제조를 중심으로 하는 클러스터의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광주시가 최적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광주 지역의 자동차 관련 산업들이 성장했을 때 다른 지역의 모든 산업에 미치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 교수가 분석한 지역별 생산유발 효과 또한 자동차엔진 및 부품 산업의 경우는 광주가 1위로, 전국적으로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광주시에 자동차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것이 다른 지역과의 동반 성장 측면에서 가장 유리하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광주와 전북의 경우 완성차의 특화지역인데도 자동차 부품산업은 특화되지 못해 생산의 효율화와 차별화가 극대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호남 지역 자동차 클러스터의 경쟁력과 생산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자동차 부품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광주시도 잘 알고 있는 바다.

문제는 광주시의 최대 역점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676억 원)이 최근 공개된 막판 정부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빛그린국가산단과 진곡산단 등에 친환경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이 삭감된 바 있다.

이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등 국비 지원 절차의 미이행 때문이긴 하지만 이달 말 결과가 나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추가될 수 있도록 광주시의 분발과 노력이 절실하다. 이 과정에서 '광주가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최적지'라는 연구 결과는 광주시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좋은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無 等 鼓

## 난민촌 레스보스

최근 뉴스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레스보스'(Lesbos) 섬이다. 시리아 난민 수천 명이 매일 터키를 거쳐 그리스 레스보스 섬으로 몰려들면서 연일 익사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20일에도 레스보스 바다에서 난민선이 침몰해 20여 명이 실종됐다. 그리스 해안경비대는 에게해 레스보스 섬 부근에서 침몰한 난민선 실종자 26명을 찾기 위한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 난민들의 처참한 상황, 특히 사망자 중에 항상 서너 살 아이들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레스보스는 면적 약 2100㎢로 그리스에서 세 번째로 큰 섬이자 에게해 최대 섬으로, 제주도(1847㎢) 보다 다소 큰 섬이다. 현재는 뜻하지 않게 난민촌이 됐지만 레스보스는 여성동성애자를 뜻하는 '레즈비언'(Lesbian)이라는 말을 탄생시킨 신화 속 섬이다.

그리스 신화에 가끔 등장하는 여류시인 사포(sappho)가 있는데, 그의 고향이 레스보스다. 사포는 소녀들을 모아 예술 활동을 벌였는데, 여기에서 레즈비언이라는 말이 생겼다. 레즈비언의 원뜻은 레스보스의 여인이라는 의미다. 이 단어의 의미가 확장돼 여성동성애자로 쓰이게 됐다.

또 다른 신화로는 그리스 최고의 가수인 오르페우스를 들 수 있다. 그는 부인을 잃고 떠돌던 중, 자신에게 구애를 하는 여인들을 거부하다가 트라키아에서 디오니소스 광신도 여성들에게 찢겨 죽임을 당했다. 찢긴 신체 중 오르페우스의 머리와 그가 연주하던 리라(악기)가 강물을 타고 흘러 도착한 곳이 레스보스 섬 해안이다. 그곳 주민들은 예를 갖춰 오르페우스의 머리를 묻어주었고, 뮤즈들은 그의 리라를 하늘 별자리에 안치했는데, 이것이 거문고자리이다.

신화의 섬 레스보스는 시리아 난민들에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곳이다. 조그만 고무보트에 수십 명이 다닥다닥 붙어 바다를 건너는 탓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연일 익사자가 발생한다고 한다.

불어나는 난민들이 부담스럽겠지만 수백 킬로미터를 떠내려 온 오르페우스의 사체를 수습했던 그리스의 온정을 다시 보여 주길 바란다.

/채희종 사회2부장 chae@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61482)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대표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대표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